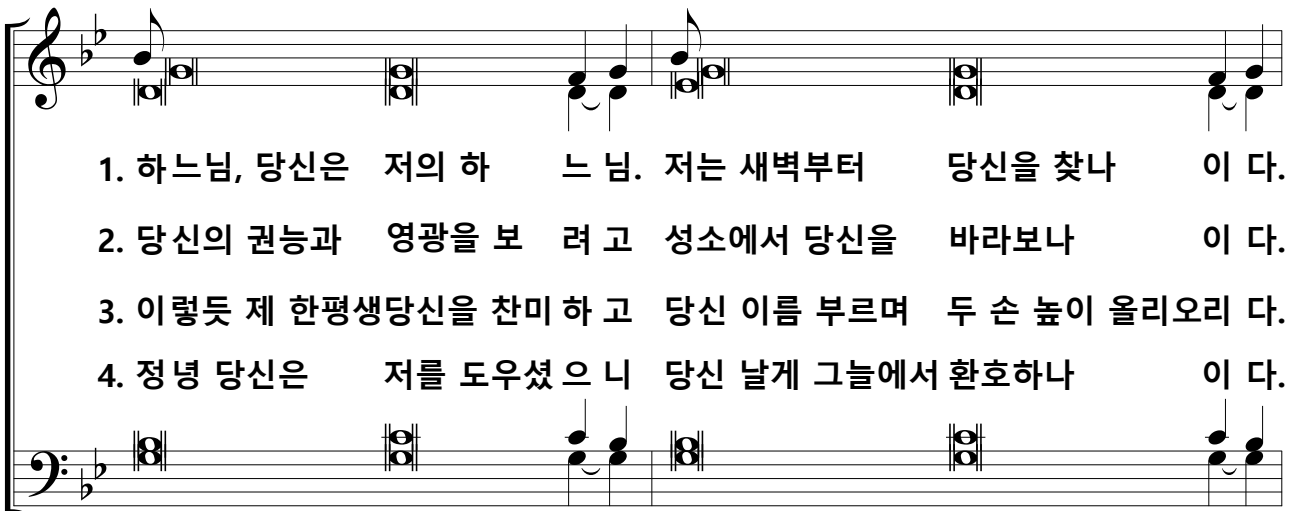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22 주일 화답송 [가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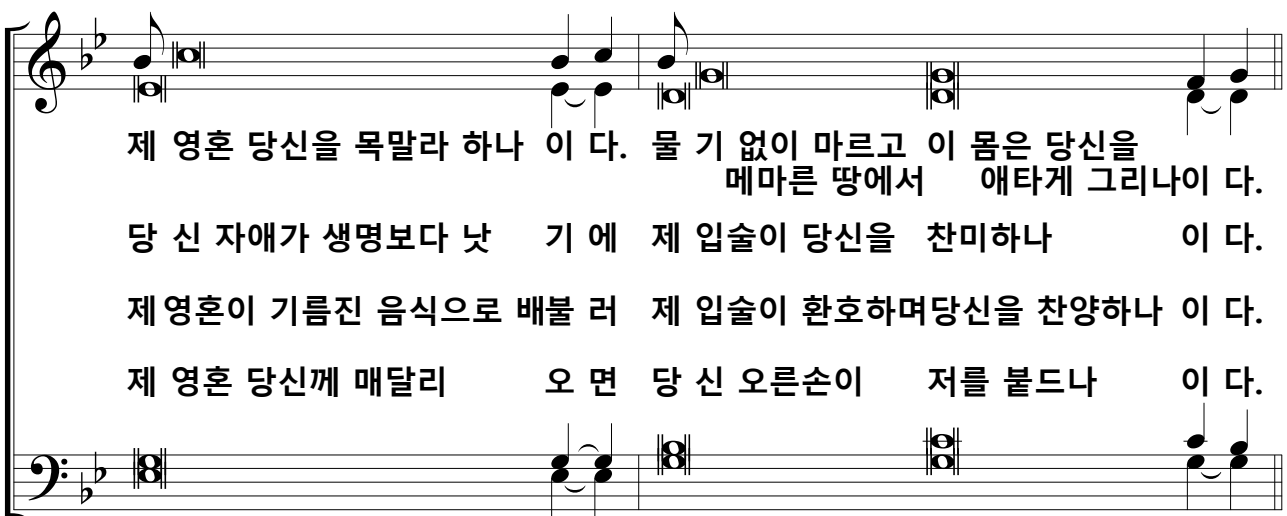
시편 63(62), 2. 3-4. 5-6. 8-9



(후렴) 주 - 님, 저 의 하 느 님, 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- 하 나 이 다.



1. 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 느 님.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 이 다.
 2.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 려 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 이 다.
 3. 이렇듯 제 한평생당신을 찬미 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 다.
 4.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 으 니 당신 날게 그늘에서 환호하나 이 다.



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하 나 이 다. 물 기 없 이 마 르 고 이 몸 은 당 신 을
 메 마 른 땅 에 서 애 타 게 그 리 나 이 다.
 당 신 자 애 가 생 명 보 다 낮 기 에 제 입 술 이 당 신 을 찬 미 하 나 이 다.
 제 영 혼 이 기 림 진 음 식 으 로 배 불 러 제 입 술 이 환 호 하 며 당 신 을 찬 양 하 나 이 다.
 제 영 혼 당 신 께 매 달 리 오 면 당 신 오 른 손 이 저 를 불 드 나 이 다.

연중 제 22 주일 알렐루야 [가해]



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야



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,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
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 시 어 희망을 알게 하여주 - 소 서.